

러시아 특허기술 도입 활발

이전료 적정, 절차 쉬워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특허 기술 이전사업이 활발하다.

특허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공구업체인 월드기계가 최근 러시아 VNI 연구소로부터 절삭공구가공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상호의정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러시아 특허기술 이전사업이 본격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내기업들은 러시아 특허기술이 기술수준에 비해 이전료가 적정할 뿐 아니라 군사비밀을 제외한 모든 일반

특허기술을 정부승인절차 없이 손쉽게 이전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성사는 이스베치아연구소 등 2개기관의 제트인쇄기술을 비롯한 3건의 특허기술에 대한 이전을 협의중이고 삼성전자는 이오펜롤리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5개기관과 톰슨회절법에 의한 플라σμα진단법 등 7건의 기술을 협의하고 있다.

또 (주)태평양은 모스크바 대학 화학연구소 등과 피부재

생촉진기술을 비롯한 피부미용관련기술 10건을 협의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레닌그라드냉동산업연구소 등 5개기관과 고순도 액체산소제조기법을 비롯한 15개기술을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동양나이론도 폐수처리를 위한 바이오스티물레이터등을 이전받기 위해 구체적인 현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기술이전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달 특허청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러시아에 파견, 모두 37건의 특허기술에 대한 이전협상을 현지에서 직접 벌이기도 했다.

공동브랜드 활용 실적 부진

정부지원없고 기업인식 낮아

보다 효과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여러 기업이 같은 상표로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까지 함께 하는 「공동브랜드 전략」이 최근 일부 중소기업이나 조합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조사해 발표한 공동브랜드 추진현황에 따르면 90년 「가파치」 상표의 가죽제품 제조업체인 기호상사가 정인상사 등 4개업체와 상

표를 공동사용기로 제휴하는 등 지금까지 개발된 공동브랜드는 8개, 사용업체수는 7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호상사는 제휴업체수를 12개로 늘리며 당초 피혁 브랜드로 출발한 「가파치」 상표에 양말·의류·우산까지 보탬으며, 서울 핸드백조합과 대구여성패션조합은 회원사 공동으로 「각시번」과 「코치호」 상표를 개발했다. 또 스포츠용품업체인 낫소와 쌍용자동차는 「낫소」와 「코란도」 상표를 (주)쌍용의 스포츠화

및 등산화와 각각 공동 사용중이며, 대전무역상사협의회는 대전지역 피혁업체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 등이 거의 없는데다 전략적 제휴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역시 매우 낮아 당장 공동브랜드 개발이 활성화되기는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당수의 자체 브랜드와 뛰어난 마케팅능력을 가진 종합상사의 참여 역시 극히 부진해 삼성물산이 「볼텍」 등 3개 브랜드를 중소기업과 공동사용하는 외에는 공동브랜드 활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